

CEO Message

처음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성년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2만 명의 시대가 열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로펌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날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세월 어렵게 쌓아온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담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난민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지금까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로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분투하였습니다.

나라 안에서 안주하기보다 밖으로 나가 활동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 러시아와 이란에 9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내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중심과 공익, 그리고 개척정신을 품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왔고,
고객과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지평이 걸은 성장과 고민의 이야기를 첫 지속가능보고서(사회책임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국내 로펌으로서 처음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내놓기에 부끄럽습니다만, 새로운 도전으로 너그럽게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